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706.97	↓ 코스닥	879.96
	(-46.19)		(-11.63)
↑ 금리 (미국 9년)	3.341	↓ 환율 (원/달러)	1348.90
	(+0.008)		(-3.20)

여초지역 늘고  
1인가구 1000만 시대  
열렸다  
02



## ‘초연결’ 삼성 vs ‘공감지능’ LG... AI 가전 맞짱 뜬다

삼성전자 “AI 가전=삼성” 선포  
2024년형 비스포크 AI 15종 공개  
빅스비 등 통해 모든기기 원격제어

LG전자 “업 가전이 AI의 시초”  
공감지능 적용 제품 10여종 확대  
온디바이스 AI칩 자체개발 나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 시장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가전과 글로벌 TV 시장을 두고 주도권 선점에 나선 것. 특히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 규모가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시장에 삼성전자가

다시 뛰어들면서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의 규모는 5386억달러(약 766조원)로 지난해 4480억달러(약 637조원)에서 2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가전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4.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일 삼성전자는 초연결 AI 가전 신제품을 공개하며 2024년형 비스포크 가전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이날 선보인 제품은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비스포크 AI 인덕션 등이다. AI 제품은 15종이다. 대형 터치스크린 기반의 ‘AI 홈’, 음성 인식 ‘빅스비’를 통해 집안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같은날 LG전자도 참고자료를 통해 고객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감지능’을 강조하며 글로벌 AI 가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현을 위해 가전 전용 온디바이스 AI칩 ‘DQ-C’를 자체 개발해 주요 제품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2024년형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 에어컨,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등에 공감지능을 적용했으며, 공감지능 특징을 적용한 제품군을 10여종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킨 차세대 가전 전용 AI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AI칩 라인업을



대만 ‘강진’에 TSMC 반도체 공급망 비상

3일(현지시간) 대만 동부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2 강진으로 최소 7명이 숨지고 736명이 다쳤다고 로이터와 AFP통신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회사인 TSMC도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우려된다. 한 건물이 크게 기울어져 있다. /뉴시스

다변화하고 공감지능의 AI가전 제품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장들이 AI 가전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중희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DX부문장)은 지난 1일 기고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선보이는 2024년 제품은 AI(인공지능) 기술의 집약체”라며 “최첨단 AI와 스마트싱스(SmartThings) 기반의 연결 기술로 무장한 ‘비스포크 AI’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판매량을 적극 홍보하며 ‘AI 가전=삼성’ 공식을 선포했다. 이 제품은 하나의 드럼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제품이다.

LG전자도 바로 맞섰다.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공지능(AI) 가전의 시초는 우리가 만들어낸 업(UP) 가전”이라며 “세탁기에 대한 제품 경쟁력은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도 다 알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경전을 높였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편법 아닌 불법”

금감원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조사  
이복현 원장 “대출용도 다르면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공동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5명의 검사 인력을 파견했으며 검사는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반은 양 후보의 사업자 대출 관련 거래 내역은 물론 전반적인 사업자 대출 현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8개월이 지난 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의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 원을 갚았으며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 예타 획기적 개선”

대통령실, 예산확대·개혁 ‘투트랙’  
연구비 이용·성과 등 국민 투명공개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R&D 예산 확대와 함께 R&D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과학기술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그래서 정부는 정부 R&

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해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등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연구기관·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및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4대 필수요건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전했다.

이를 위해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

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위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R&D 예타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이상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현장을 뛰어다니는 마이크로 규제 폐지와 연구비 이용·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고,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뉴스리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동훈 “이재명, 본인도 인정한 일베 출신... 제주 아픔 이용만 해” /사진 뉴시스  
▲ 민주당,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편성에 “총선 앞두고 급하게 증액”

▲ 정부, ‘대북제재 위반 연루’ 의심 무국적선박 남해 해상서 나포  
▲ 국방부, 총선 앞 ‘尹대통령 강연’ 장병 정신교육 하려다 보류



▲ 송영길 또 재판 불출석... 법원 “영망됐다, 구인장 검토”  
▲ 위안부 단체들, 민주당 김준혁 후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사진 뉴시스